

보도시점 2025. 5. 7.(수) 12:00 / 배포 2025. 5. 7.(수) 08:30
< 5. 8.(목) 조간 >

당뇨 예방·관리에 필수적인 혈당측정기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 제재

- 온라인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저가 온라인 판매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 -
- 미준수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에게 가격인상요구, 공급중단 등 불이익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아이센스(이하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주)대한의료기(이하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 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 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하였다.

* 란셋을 통해 추출한 혈액을 스트립 반응 부위에 묻힌 후 이를 미터에 삽입하여 혈당을 측정하는데(참고2), 구성품 중 재판매가격행위의 대상은 미터, 스트립에 한정됨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하고, 대한의료기로 하여금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게 하였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하여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하였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하였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게 온라인 판매가 수정 요구, 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고,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

특히, 대한의료기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아이센스는 자신의 대리점 및 대리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급한 대리점을 추적하여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의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당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의 국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주)아이센스 및 (주)대한의료기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책임자	과 장	황태호 (02-2110-6110)
		담당자	사무관	김건주 (02-2110-612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주)아이센스 및 (주)대한의료기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1 관련 시장 현황

- (시장현황) 혈당측정기 시장은 당뇨병 환자의 가파른 증가세*에 따라 크게 성장하였다. 국내 혈당측정기 시장은 아이센스를 포함한 국내 상장사와 로슈 같은 외국계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인데, 국내 상장사 기준 아이센스는 2020년 이후 60%를 넘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 '23년 국내 당뇨병 환자 수는 약 383만 명으로 '19년 대비 18.6% 증가

** ('20년) 70%, ('21년) 66%, ('22년) 63%, ('23년) 70%

- (유통구조) 아이센스는 2020년 이전에는 오프라인 대리점(유통, 병원, 관공서)을 통해 의료기상, 약국 등의 오프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판매하고, 온라인 판매는 아이센스와 직접 거래하는 온라인 거래처를 통해 이뤄졌다. 2020년 이후 대한 의료기를 온라인 대리점으로 선정하여 온라인 판매에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였다.

- 다만, 온·오프라인 유통 구조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아이센스와 직접 거래하거나, 대한의료기를 거치지 않고, 오프라인 대리점에서 제품 구매 후 온라인에서 재판매한 판매업체가 존재한다.

< 아이센스의 혈당측정기 유통구조 >

구분	판매경로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대리점 → 간접납품업체 → 의료기상, 약국 → 소비자 ○ 유통대리점 → 의료기상, 약국 → 소비자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대리점 → 간접납품업체 → 병의원 ○ 병원대리점 → 병의원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대리점 → 간접납품업체 → 소비자 ○ 온라인대리점 → 소비자 ○ 자사몰(케이센스몰) → 소비자
관공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대리점 → 간접납품업체 → 관공서 ○ 보건소대리점 → 관공서

② 행위사실

□ (2020년 이전)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혈당측정기의 온라인 권장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2019년에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게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였다.

- 아이센스는 임대료, 매장 유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라인 권장판매가격을 정하여 온라인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판매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인식하도록 하였다.
- 2019년에는 온라인에서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조사·적발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공급가를 10% 인상하고, 대리점을 통해 공급수량 제한, 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였다.

* 행위기간('19 ~ '24년) 동안 스트립의 총 매출액은 약 470억 원으로 스트립, 미터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의 99%를 차지

□ (2020년 이후)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온라인 쇼핑몰 상에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대한의료기를 통해 온라인 가격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온라인 판매업체로 하여금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 아이센스는 온라인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한의료기를 온라인 대리점으로 선정하였고, 상호 협의하여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설정하여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하였다.
- 대한의료기는 스트립에 대한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하여 이를 지속해서 아이센스와 공유하였고, 저가 판매업체에게 판매가 인상을 요구하였다.
- 또한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함께 반복적으로 판매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공급가 10% 인상, 적발 시 제재와 같은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하였고, 일부 저가 판매업체에 대한 공급을 제한 또는 중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판매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공급 물량을 제한*하였고, 20개의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일부 업체에 대해 공급중단**을 실행하였다.

* A사가 스트립을 400박스(1박스에 스트립 50개) 발주 요청했으나 50박스만 공급

** 특정 업체의 연락처로 스트립 주문 시 공급 금지

3 위법성 판단

□ 아이센스가 대한의료기와 함께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

□ 아이센스는 이 사건 행위로 소비자와 대면하여 제품을 홍보·추천하고 제품 사용법을 교육, 안내할 수 있는 오프라인 유통점이 제 기능을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효과가 가격 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다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4 적용 법조·조치 내용

□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 조치 내용

○ 아이센스: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교육명령*) 및 과징금(256백만 원)

*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 대한의료기: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5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 이번 조치를 통해 자가혈당측정기 온라인 판매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자가혈당측정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공정위는 앞으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참고1〉 일반현황 및 관련 법 조항

〈참고2〉 자가혈당측정기 제품 구성

참고 1

일반현황 및 관련 법 조항

1. (주)아이센스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설립일	매출액			당기순이익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00. 5. 4.	193,881	221,991	210,653	31,700	20,110	15,602

* 자료출처: 아이센스 제출자료

2. (주)대한의료기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설립일	매출액			당기순이익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12. 10. 17.	13,771	11,812	10,754	585	169	224

* 자료출처: 대한의료기 제출자료

3. 관련 법 조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제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생략)

참고 2

자가혈당측정기 제품 구성

구성	제품 사진	제품 특성
미터		혈액 내 혈당의 농도를 검출하는 센서를 이용하는 한 손에 잡히는 작은 크기의(hand-held) 장치로 수천~수만 번 재사용이 가능하다.
스트립		혈액을 묻힐 수 있게 화학적으로 제조된 용기로 1회용 소모품이며, 얇은 막대 모양의 외관을 가지며 혈액 내 혈당과 반응하여 전기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다.
란셋		피부에 구멍을 뚫어 모세혈관의 혈액이 나오게 하는 장치이며, 일반적으로 손가락 끝에 1회용 바늘을 사용한다.